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NO. 415 / ANSAN CITY NEWSPAPER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 ㉡ blog.naver.com/cityansan
- ① facebook.com/ansancity3
- ① twitter.com/ansancityhall
- ㉢ story.kakao.com/ch/ansancity

발행일 2016년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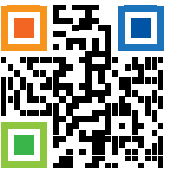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https://bravoansan.net

2016.03.16



“안산으로 와~
2016 국내 첫 A매치!”

KEB하나은행 후원 월드컵 아시아예선

대한민국 VS. 레바논

3월 24일 목요일 20:00 안산와~스타디움

입장권 판매처 ▶ KEB 하나은행 INTERPARK 안산시청,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



www.kfa.or.kr



안산 시승격 30주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 문의 :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031-486-1390, 487-1390)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031-418-1390, 419-1390)

4월 13일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선거일을 앞두고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산단원선관위)를 찾았다.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52)는 단원·상록구 개편에 따라 건물 2층에 단원선관위를, 3층에는 상록선관위를 두고 운영한다.
안산단원선관위는 지난 2월 29일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열고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법 상 제한·금지 규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쳤다.

안산단원선관위 이승욱 주임에게 듣는다

Q.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우선 절차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구요.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는 TV 등 방송광고·캠페인을 통해, 지역 선관위는 시 주요 행사나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최근 SNS 발달로 소통 채널이 넓어져 이를 통해서도 참여분위기를 독려합니다.

Q.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명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A.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관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을 허용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개표참관도 가능하도록 해 개표참관인의 범위를 확대했고, 투표용지의 각 정당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설정해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Q.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개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 투표지분류기 운영 ▷ 심사·집계 ▷ 개표상황표 확인 ▷ 위원 검열 ▷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되며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거소투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서(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등이 거소 투표 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신청을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봉합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장애인 전용차량과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백색)과 비례대표국회의원(연두색) 선출을 위해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투표일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Q. 안산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A. 경기 서부권(안산, 시흥, 부천)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시설 등에서는 거소투표제를 적극 이용하고, 휴무가 불가피한 중소기업에서도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 주는 등 국민의 참정권을 서로 보장해주며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97주년 3.1절 기념식’, 만세길 걷기 등 삼일절 의미 되새겨

“1919년 3월 그날의 합성을 기억합니다”

안산시는 지난 1일, 광복회원과 가족, 시민 등과 함께 안산초등학교에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다.

1919년 서울에서 봉기한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3월 30일 수암 비석거리, 4월 1일 반월장터, 4월 4일 군자면사무소 등지의 만세운동에 4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중 수암동 비석거리 만세운동은 인근 18개 리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안산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은 안산시 최대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에서 기념식을 갖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념탑을 건립하는 등 시민의 역사 의식과 자긍심을 키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기념식이 끝나고 3.1만세 운동을 주제로 한 연극 ‘마지막 봄 : 그날의 합성, 안산의 외침’이 공연됐다. 배우들은 “우리도 장터로 나가 독립만세를 부릅시다.”라며 강당에 모인 군중을 운동장으로 불러내 연극에 참여시켰다. 안산초등학교 운동장은 97년 전 아우내 장터로 옮겨갔고, 시민은 관객이자 배우가 되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다.

유관순 디자인문화고등학교 조현정 학생(공연콘텐츠과 3학년)

은 “이번 삼일절 행사에 우리 학교 연극동아리 ‘예천’이 극단 ‘이유’와 함께 공연하게 되었어요. 비록 연기였지만 저와 같은 나이인 열여덟 살에 독립을 외치며 만세운동을 하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기념식 후에는 3.1만세길 걷기행사가 이어져 참석자 모두가 안산초등학교부터 안산3.1만세운동 기념비까지 걸으며, 당시의 3.1만세 운동을 재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경순 씨(고잔동)는 “쌀쌀한 날씨에 집에서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보니 안산의 독립운동에 대해 알게 되고, 딸아이와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길을 직접 걸으면서 안산시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라고 말했다.

글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안산시 곳곳의 숨은 매력 느껴보세요

내나라 여행박람회2016 ... 안산9경 · 국제거리극축제 소개

전국 방방곡곡의 여행 명소와 지역축제 등을 소개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2016’이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13회째를 맞아 360여 개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내 나라 여행박람회2016은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 안산시는 ‘서해안의 보물섬 대부도’, 안산의 아름다운 명소 ‘안산9경’과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알리면서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화호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조성한 104만km²의 국내 최대 인공습지 공원으로 현재 야생조류의 천국이자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격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추위가 채가지지 않은 이른 봄, 복수초 · 노루귀 · 풍도바람꽃 등 찬바람속에서 수줍게 피어나는 야생화로 매년 봄이면 전국의 동호인과 사진가들을 불러 모으는 대부도의 막내, 이 섬은 어디일까요?” ‘안산갈대습지공원’ ‘풍도’ 등 안산9경을 소재로 한 퀴즈풀이가 안산시 홍보부스에서 한창이었다. 진행자의 설명에 귀 기울여 답하는 관람객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마치 바람에 서걱대는 갈대소리와 여러지만 강인한 봄 꽃 풍도의 야생화를 상상하며 “공업도시 안산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지?”하는 듯했다.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는 안산의 특산물 ‘대부맛김 · 동주염전소금 · 상록수된장마을의 대부포도고추장’ 등이 경품으로 주어졌다.

5월의 국제거리극축제와 안산9경의 이미지를 조각조각 퍼즐로써 형상화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조각을 다 맞춰 그림이 완성됐을 때에는 “와~”하는 소리가 참여자의 입에서 절로 나왔다.

홍민주 · 이지은(백석대학교 관광학과 2학년) 씨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지난해에 다녀왔는데 올해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외국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리극축제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부도 유리섬 박물관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만든 유리 공예품들도 선보여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인자(56세, 서울시 강동구) 씨는 “유리섬 박물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안산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유리섬 박물관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안산의 매력적인 여행지인 노적봉폭포, 다문화거리, 동주염전, 구봉도 낙조, 풍도, 대부해솔길, 시화조력발전소, 탄도바닷길, 갈대습지와 국제거리극축제가 자세히 소개됐다.

안산시 관광과 마케팅계 전형훈 담당자는 “서해안의 보물섬 대부도와 국제거리극축제, 안산9경 등 안산시 곳곳의 숨은 매력이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관광과(031-481-3409)
글 · 사진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안산품애향
안긴 대부도

작지만 큰 섬, 아직 그 매력을 다 보여주지 않은 대부도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고

전화 지역번호가 인천권인 032번인 곳, 많은 사람들이 서해바다의 팔색조 매력에 이끌려 찾아오는 섬, 대부도.

서쪽으로 지는 해의 끝자락을 아쉬움으로 붙잡고 싶은 곳,

가족과 함께 바다내음과 신선한 해산물을 찾아 가장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대부도.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부도를 여행하였겠지만 대부도는 아직도 숨은 매력이 많은 곳이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대부도를 제대로 즐기도록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안산품애향 안긴 대부도’라는 꼭지를 연재한다.

출생의 비밀, 대부도

대부도는 북쪽으로 시화방조제를 통해 시흥, 인천과 이웃하고, 남동쪽으로는 선감도, 불도, 탄도 등 섬과 섬이 방조제로 이어져 화성과 마주하고 있다. 일제 강점 후 대부도 지역은 1914년 남양군에서 부천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웅진군에 속해 있다가 199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비로소 안산시에 편입됐다. 우리가 ‘안산’하면 떠오르는 지리적 공간과 직접 맞닿아 있진 않지만, 사실 대부도는 오래 전부터 ‘또 하나의 안산’이었다.

이름의 비밀, 대부도

고려시대 문헌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대부도(大部島)’ 지명, 마을 부(部)를 써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여러 섬을 다스리는 큰 고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조선시대 남양 쪽에서 보면 섬이 아닌 큰 언덕처럼 보인다고하여 언덕 부(阜)를 써서 지어진 이름 ‘대부도(大阜島)’, 또한 섬의 해안선 굴곡이 심해 낙지가 팔방으로 발을 벌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하여 ‘낙지섬’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채롭고 풍요로운 갯벌에는 각기 다른 생물들이 서식하여 해산물이 풍부하고 더불어 비옥한 토질로 인해 다른 섬과 달리 농사가 잘되 부유한 섬이라는 뜻에서 ‘대부도(大富島)’라 불리기도 했다. 이렇듯 해양생태자원이 넘치는 갯벌의 천국 대부도는단연 자랑거리이자 해양생태전문가들이 ‘연안박물관’이라 부르는 곳으로,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귀중한 재산이다.

섬의 비밀, 섬 사람들

이곳에서 삶을 마련하고 오랜 세월 자연과 생태와 어우러지는 삶을 일구었던 섬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또한 자연과 생태와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삶의 모습들이 빚어낸 문화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무수한 역사적 사건들도 있다.

다음호에는 〈안산품애향 안긴 대부도〉를 통해 흥미롭고 다채로운 사건과 공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대부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년큐브에서 꿈을 펼치는 ‘연극과 마을’

안산의 이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꿈을 꿈니다

지난 2월 26일 월피동 광덕시장에 문을 연 ‘청년큐브 예대캠프’ 입주팀 〈연극과 마을〉을 찾았다. 비어있던 상가에 창업공간을 조성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융복합 실험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사무실을 지원받은 예대캠프에는 20팀이 입주해 있다.

〈연극과 마을〉은 안산을 기반으로 연극 관련 창작을 하는 단체다. 마을이야기로 공연(연극, 뮤지컬) 만들기, 연극 교육사업, 연극 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극단 인큐베이팅, 마을축제 사업 기획을 목표로 올 1월 창단했다. 연극 교육사업과 마을극단 인큐베이팅은 〈연극과 마을〉이 추구하는 문화기획의 중요한 과정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무대 경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며 큰 보람을 얻는다고 한다. 그간 실버극단 〈봄날〉, 고잔동 청소년 극단 〈알라딘〉 등 시민극단을 배출하는 데 주력했다.

변효진 대표(28세)는 “서울예대 졸업생들은 대부분 주류인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그런 현상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안산이라는 지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서울예대 졸업생들과 안산 토박이들이 뜻을 모아 ‘연극과 마을’을 결성했습니다. 그간 각자 집에서 일을 하던 우리들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생기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해보려는 의욕이 생기네요.”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졸업 이후 극단 〈결판〉에 몸담았던 변 대표는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 학생들이 모여 창단한 극단 〈동네풍경〉에도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다. 작년에는 청소년극단 〈고등어〉의 뮤지컬 ‘안녕, 로맨스’의 대본을 창작했으며, 안산지역의 대표적 풍어제인 ‘둔배미 놀이’를 연희극으로 만들어냈다. 둔배미 놀이는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던 안산의 풍경과 노동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겨내며 삶을 영위해온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만선과 관련한 민담설화 같은 이야기로 시대를 아우르는 노동(만선)과 생명(무사귀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기획했다고 한다. 지역의 전통문화가 새로운 예술 콘텐츠 공연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지점에 안산의 토박이 변 대표가 역할을 하고 있었다. 2013년 8월, 광덕공원에

서 열린 동네잔치 ‘우리 동네 왁자지껄 대소동’에서도 연극 ‘따봉 패밀리, 노래하다!’에서 아주머니 역할을 맡아 열연을 했다. 마을 주민과 전문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공공예술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변 대표는 “연극은 삶입니다. 떨리는 순간들을 이겨내며 옆의 배우들을 믿고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지요. 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길과 결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무대에 섰을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연극을 통해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워요.”라며 “안산설화나 꽃우물마을 등 마을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또 중학생들과 창작수업을 통해 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연극을 기획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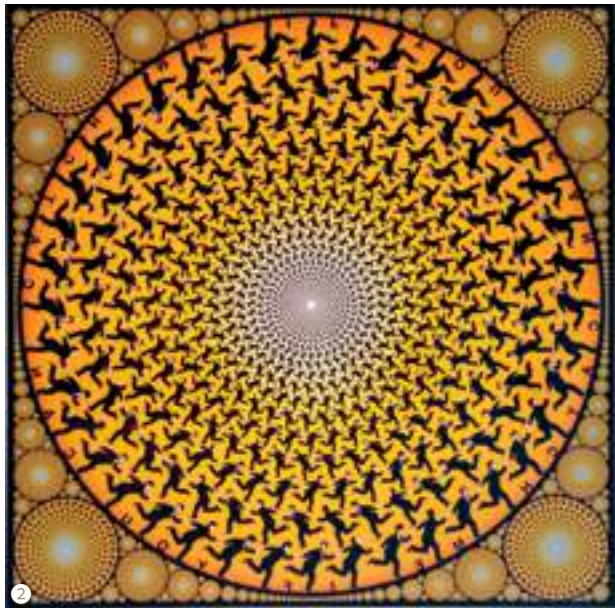
청년큐브 예대캠프 매니저 원미 씨(30세)는 “큐브에 입주한 팀들은 대부분 예술 분야의 일을 합니다. 예술은 분야가 광범위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웹 개발과 상품 제작을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이 모이니 서로 연결고리가 되며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게 되어 관리자로서도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셋 이상이 되는 청년큐브에서 함께 꾸는 꿈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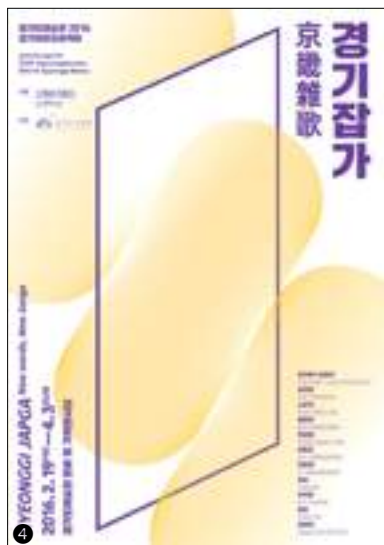
문의
연극과 마을 ☎ 010-8443-1431
주소 :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광덕종합시장 3층

글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1. 함진, 도시 이야기
2. 이종근, 나잡아 봐라
3. 윤상렬, 침묵(Silence)
4. 경기잡가 포스터



변방에서 울리는 새로운 상상력

경기도미술관 ‘경기잡가’展, 일상에서 이야기를 건지다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력은 때론 주류가 아닌 변방에서 나온다.

경기도미술관 2016 경기아트프로젝트 ‘경기잡가’ 전시는 정악(正樂)보다 잡가(雜歌)를 자처하며, 변방에서 새로운 주제의식과 표현형식으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보여준 11인의 작가를 조명한다.

‘경기잡가’라는 주제로 묶인 전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멀리서 지켜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던 작품도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관찰해보면 위트 있는 비밀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침 도슨트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일상에서 문득 스쳐지나가는 상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건져 올린 것이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함진 작가의 ‘도시이야기’는 허공에 떠 있는 검은 점토작업을 통해 추상적인 덩어리 안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언뜻 보기에는 1999년 이후 작가가 십여 년간 꾸준히 이어왔던 극소(極小)의 구상 작업과는 전혀 다른 듯하지만, 작품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작가가 관찰한 주변의 작은 면면들이 구체적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윤상렬 작가의 작품은 샤프심으로 무수한 선긋기를 하거나, 여러 종류의 샤프심을 나열하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부유하는 감정들에 집중한다. 도슨트는 “선수행하는 수도자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십만 번의 선긋기 작업 과정 자체가 엄청난 집중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결과물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사진을 콜라주 작업해 패턴으로 만드는 이종근 작가의 작품들은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에서 들여다 볼 때 전혀 다른

시각 경험을 준다. 그의 패턴 작업들은 커다랗게 연결된 세계 속에서 미묘하게 다른 사건들로 반복되는 삶을 함축하기도 하고, 성스러운 공간에 숨은 그림처럼 세속적인 요소를 위트 있게 섞어놓는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있나요’,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작품에서는 건축물에 숨은 작가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여행자이자 철학자로 불리는 배종현 작가의 작품 ‘별 헤는 밤’은 하늘에 무수히 많았던 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소비하는 별들로 바뀐 현실을 별이 상징하는 다양한 상표들을 통해 보여준다. 소비하는 별들이 남긴 운석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쓰레기의 형태로 나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연을 흉내 내어 얻은 자본과 에너지로 재구축한 도시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전시기간 중 경기도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여 작가와 함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잡가 열창 : 아티스트 토크’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열리고,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은 3월 19일 오후 2시에 전시장에서 열린다.

☎ 문의 :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안산 시승격 30주년 70여 작품전 ‘봄의 소리’, ‘장미’ 등 전시

단원미술관에서
오는 3월 25일까지 열려

성큼 봄이 다가왔다. 갑작스러운 봄비가 내리고 개구리가 깨어나는 경칩을 지나 기온이 부쩍 올랐다. 자연이 깨어나는 3월, 움츠러든 몸을 활짝 펴고 미술관 문을 두드리며 봄을 맞이하는 것도 좋겠다.

정문규 화백의 ‘봄의 소리’, 성백주 화백의 ‘장미’ 등 70여 점의 소장품전이 3월 25일까지 단원미술관 제1관에서 열린다. 단원미술관이 미술관 등록 조건을 갖추고 1종 미술관 등록을 완료하며 그동안 수집한 소장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전시이며,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전시실을 둘러보니 낯익은 작품들이 보인다.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작품들을 다시 보니 반갑다. 빗속을 뚫고 그림을 보러 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인천에서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장모와 함께 단원미술관을 찾은 황의성 씨는 “직장이 안산이라 오가며 플래카드를 보고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 좋고 여러 그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고잔동에서 남편과 함께 온 김현숙 씨는 “그림을 보니 봄을 느낄

수 있네요. 남편과 나들이 삼아 나왔는데 그림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문규 화백의 ‘봄의 소리’는 벚꽃을 그린 걸까, 아니면 다른 붉은 꽃을 그렸을까 상상하게 된다. 또한 정 화백의 ‘황색의 향연’은 봄의 개나리를 그렸을까, 가을의 은행잎을 그렸을까 고심하는 재미를 더한다. 어느 작품이든, 작품 감상은 관람객의 몫이라고 화가들은 말한다. 내 마음속에 와닿는대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작품감상의 정답이다.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등 2000년대 이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단원미술관 소장품전(부제: 봄의 소리)에서 봄의 소리를 들어보자.

☎ 전시기간 및 문의: 3월 25일(금)까지, 단원미술관(031-481-0504, 0508)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정문규, 봄의 소리



성백주, 장미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결혼사진 프로젝트 전시 열려

결혼사진을 꺼내보다!
시선이 머물러 생각이 머물다!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지난해 연말부터 준비해온 작업으로 반월동에 거주하는 22쌍 부부의 결혼사진과 포토스토리북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하면서도 편하게 다가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던 차에 마을공동체의 시발점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초석이 된 결혼부터 짚어가기로 한 것이다.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계자는 “결혼 이야기와 결혼을 통해 마을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부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어요. 각 가정을 방문해 인터뷰를 하면서 결혼과정의 스토리, 반월동에 대한 애착과 부부에게 바라는 점 등을 들을 수 있었지요. 부부가 서로 다른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어 잊고 있던 추억까지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답니다.”라고 말했다. 그 중 초등학교 동창 부부(이용우·이희분, 1981년 결혼)는 친구들이 결혼식장에 와서야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또 이용우·이희분 부부는 둘의 만남을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이상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기에 늘 의논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의해줘서 서로에게 참 감사하다고 말한다.

“좋게 이야기 하면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것, 포장 없이 이야기 하자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20~30년을 남남으로 지내온 남 녀가 사랑이라는 끈으로 만나 함께 살게 된다.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에게로 옮겨갔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부에게로 돌아온다. 흔히 말해 정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이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부부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부부의 모습, 그게 결혼이 아닐까”라고 윤차영·오영희 부부(1978년 결혼)는 결혼에 대해 말한다.



이용우·이희분 부부(1981년 결혼)

이번 프로젝트는 2014년에 결혼한 부부부터 1978년에 결혼한 다양한 부부가 참여했다.

결혼사진 프로젝트는 반월동 보건지소, 시청 1층 로비 전시를 거쳐 현재 안산시의회 풀뿌리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4월 말까지 다음 각 장소에서 전시된다.

☎ 문의: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031-409-7960)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전시일정

3월 14일 ~ 3월 19일: 안산시의회 풀뿌리갤러리
3월 21일 ~ 3월 24일: 상록구청 1층 로비
4월 4일 ~ 4월 16일: 일동 마을사랑방카페 마실
4월 18일 ~ 4월 30일: 사2동 주민센터 분소

사진 찍기 좋은 숲 ;

대부도 북망산 하이앵글로 담은 대부도 풍경



한 장의 사진에 대부도를 담다

대부해솔길 1코스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북망산은 120m의 낮은 산이지만 전망대에 오르면 대부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사방으로 탁 트인 뷰(view) 만으로도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풍경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이미 사진가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을 따라 걷다보면 동서가든 캠핑장이 나타나고 이후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 북망산에 오른다. 서벅서벅 사박사박 나뭇가지를 찢히며 나아가는 길에 리본이 나를 반긴다. 숲에서 길안내를 하는 리본이다. 주황색과 은색 리본은 각각 석양과 갯벌을 뜻한다. 정상에 오르니 산은 나지막하다. 그러나 크고 넓은 서해가 이제 내 발아래 놓여있다.

북망산 전망대에 서서 떠나 온 길을 되돌아본다.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가느다란 선으로 가물거리고, 원편으로는 수평선을 따라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대교, 영종도가 보인다. 파란 하늘의 비행운(飛行雲)이 영종도 방향으로 이어져 비행기가 오가는 길목임을 알려준다. 오른편에는 시화·안산공단이, 그 너머로 내가 사는 안산이 시화호 옆에 낮게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선 바다향기테마파크와 대송단지도 한눈에 들어온다.



봄이 기다려지는 대부도 최고의 촬영지

가까이서 찍는 것도 좋겠지만 한 장의 사진에 모두 담아 보는 것도 풍경 사진의 또 다른 맛이리.
봄별 속에서 부푼 흙을 뚫고 봄풀들이 싹을 내밀면 이 풍경은 좀 더 산뜻해질 것이다.
청보리가 바람에 물결치고 색색의 튜립이 넓은 들판에서 나뭇대는 계절을 그려본다.
꽃 피는 계절 북망산은 최고의 대부도 풍경 촬영지가 되겠지...

대부도는 구봉도, 선재도, 메추리섬, 선감도 등과 하나의 섬처럼 연결되어 있다.
대부도 제일 북쪽인 방아머리의 수산물 직판장과 여객선 터미널의 활기도 고즈넉한 풍경으로 남는 오후,
승봉도, 이작도, 자월도, 덕적도, 소야도로 가는 배들도 때를 놓쳐버린 듯 고요하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홉 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봉도와 영흥도가 보인다.
낙조전망대를 감춘 구봉도 옆 고깔섬도 앙증맞다.
아련하다. 이런 느낌을 사진 한 장에 영원히 가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대부도의 멋진 풍광을 바라보며 서해 일몰을 기다려본다.
북망산은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하기 위한 백 패킹,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의 풍향기가 홀로 바람을 맞고 있다.
바람자루에 바람이 가득 모이면 나도 날개를 단 이카로스처럼 하늘을 나는 꿈에 부른다.
바람을 가르고 풍경을 온몸으로 담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다와 태양의 고요를 생각한다.
생명이, 자연이 시간의 리듬에 흔들리며 나의 하루도 찰각, 셔터를 닫는다.

글 신선영 명예기자 _ woghkah@hanmail.net /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안산의 유명민 작가를 만나다

‘2016 안산의 책’ 청소년 부문 도서, 「오즈의 의류수거함」



지난 3월 4일, 중앙도서관에서는 범시민 독서운동 ‘한 도시 한 책 읽기’의 시작을 알리는 ‘2016 안산의 책 선포식’이 열렸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주제로 선정된 2016 안산의 책은 구경선 작가의 「그래도 괜찮은 하루」, 유명민 작가의 「오즈의 의류수거함」, 황선미 작가의 「나쁜 어린이표」이다. 이날, 황선미 작가와 유명민 작가는 사제지간으로 북콘서트에 참가해 안산 시민과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부문 도서로 선정된 「오즈의 의류수거함」은 유명민 작가(38세, 본오동)의 등단작(2014년)이다.

Q.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소감은?

A. 2002년부터 청년시절을 안산에서 보냈습니다. 8년여를 보내고 직장생활 때문에 타 도시에서 살던 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움과 20대의 추억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안산에 정착한 지 2년쯤 되었는데, 이렇게 안산의 책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쁩니다.

Q. “주인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물건에는 존중감을 표시해야 한다(P15)”는 문장이 와 닿습니다.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A.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무생물인 사물에도 애정이나 관심을 주다보면 정신이 갇든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쓴 물건마다에는 저마다 의미가 들어있어 쉽게 버리지도 못합니다. 추억이 갇든 사물은 개인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위 이야기는 ‘의류수거함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된다(P16)’는 문장과 같은 맥락이겠죠?

의류수거함을 소재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구상을 하게 되었나요?

A. 집 앞 의류수거함에서 옷을 훔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빈디가 찍힌 인도 여성이었지요. 저를 발견한 그녀는 겸연쩍은 얼굴이었어요. 먼 타국에서 그녀가 겪어야했을 경제적 궁핍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옷들이 수준 차이가 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누굴까 등 사회적 빈부 격차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게 되면서 소설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Q. 등장인물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나요? 이들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주인공인 도로시는 노숙자, 탈북자, 아들을 잃은 엄마, 조손 가정, 약물 중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을 만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포용력과 이해심으로 서로를 보듬습니다. 외로움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치유의 힘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을 치료하고 타인도 구원합니다. 저마다의 상처에서 기인한 외로움의 시간들이 그들을 풍부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믿음의 회복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야 작가가 되는 걸까요? 작가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나요?

A. 논술 지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부분이 학업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안타까웠어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찰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낯설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독서는 기본이구요. 그러나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읽기를 권합니다. 정말로 좋은 책은 음미하며 읽으세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듯 말이죠. 읽을 때마다 우물처럼 새로운 감동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언제 읽어도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는 좋은 책입니다.

Q. 독자와 안산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제 소설에서 주제를 찾기보다는 독자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읽으면서 잠시 기뻐했으면 합니다. 책이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내는 등장인물을 통해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기 바랍니다. 세월호 등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공감과 위로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란던故 신영복 작가의 말씀처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책 읽는 안산 / 3월 2번째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경제야 놀자

아동



상식 발전소 찰칵 찰칵 경제 ①

저자 윤혜정 / 출판사 소담주니어

경제 상식을 찰칵 찰칵 발전시켜나가요!

부자가 되는 출발점인 ‘경제’에 대한 지식 70가지를 흥미롭게 익혀나가도록 꾸미고 교과서로 익히기는 어려운 꼭 알아야 하는 경제 개념만을 모았다.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 ‘경제의 신’이라고 불리는 열 살 소년 ‘경신이’뿐 아니라, 강무지, 양판지, 그리고 허우대 등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 등장하는 만화로 구성되어 재미있게 읽어나갈 수 있다.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만만한 경제학

저자 김민준 / 출판사 지공신공

이 책은 제4회 TESAT 최우수상, 제3회 매경TEST 대상을 수상한 김민준 학생이 친구들을 위해 쓴 청소년 맞춤 경제학 입문서다. 경제고등학교라는 가상의 학교에 다니며 경제학의 신이라 불리는 고등학생 ‘경신’이 제자 ‘민주’에게 경제학을 가르쳐 주는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기회비용, 자유무역협정 등 총 10화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학적 주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학 상식과 더불어 이슈화된 경제학 용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성인



경제학 콘서트

저자 팀하포드 / 출판사 웁진 싱크빅

이 책은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카도의 이론에서부터 최근의 노벨 경제학 수상 이론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왜 쓸 만한 중고차를 살 수 없을까? 어떻게 한국과 중국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나? 왜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할까? 스타벅스나 슈퍼마켓은 우리 호주머니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을까?’ 등의 흥미롭고 재치있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우리 지역의
동아리

마라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안산시 마라톤 클럽(안마클)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고 다짐하는 목표중의 하나가 운동이다. 하지만 굳게 다짐했던 목표는 하나둘씩 늘어나는 핑계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 마라톤을 함으로써 건강은 필수 조건으로 따라오고 마라톤 자체가 좋고 어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10여 년의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안산 마라톤 클럽은 2001년 안산시 마라톤 연합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안산시 육상 연합회로 변경,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1대 정상훈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회장들을 거치면서 다져지고 발전해 왔다.

안산시 마라톤의 시조격이 된 ‘안산시 마라톤 클럽’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안산시 마라톤 클럽 회원들은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시냇운동장으로 모인다. 60여 명의 정회원들은 꾸준한 연습으로 많은 대회에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운동을 위해 모인 시간을 허투로 사용하지 않고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단순히 운동을 위한 모임이 아닌 세월을 함께 견디는 동반자가 되어 운동과 함께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모임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동호인들의 노력의 결과 이 클럽에는 sub3(마라톤 거리 42.195 km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계속 도전하는 것을 큰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대단한 열정으로 동아마라톤을 준비하는 임희태 씨는 “요즘 젊은이들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완주했을 때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체력이 닿는 날까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 명예기자 _ itsumo9011@naver.com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별을 아는 어린이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안산어린이천문대 개관

하늘을 바라본 것이 언제였는지, 또 그 곳에서 반짝이는 별을 본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별을 보여주기 위해 천문대가 위치한 곳으로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비단 부모들의 마음만은 아니었나보다. 지난 2월, 단원구 꽃우물길 91번지에 ‘안산어린이천문대’가 문을 열었다. 어린이천문대는 어린이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전공 실무자들의 연구와 협의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맞을 계획이다. 박찬권 천문대장은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높은 산과 불빛이 없어야하기에 마땅한 부지를 찾으려고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후 현 위치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어린이들에게 한번쯤은 들려주고 싶었던 과학에 대한 이야기,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안산은 물론 인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문대 1층으로 들어서면 방문객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별에 관련된 모형과 책자, 망원경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줄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줄줄이 태양계는 태양에서부터 수성, 명왕성까지의 거리와 크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이외에도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교구,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등이 전시되어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2층은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이 있고, 옥상에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돔이 자리하고 있다. 돔은 주변의 잡광을 막아주고 우주의 신비함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안산어린이천문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일체험 프로그램 외에 매달 1회 정해진 시간에 다른 주제로 이룬 수업과 만들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아빠와 함께 하는 천체여행’,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탐구교실, 테마교실을 운영한다.

문의 : 안산어린이천문대(031-414-3245, <http://cafe.naver.com/astroansan>)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아리송한 맞춤법을 알려주는 ‘브라보 Talk’



여보, 오늘 저녁에 친구 아버님 문상 다녀와야 해.

오전 03:25

오전 03:25

네, 당신 초등학교 동창이라 그랬죠? 그나저나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많이 놀랐겠어요. 평소엔 건강하셨다면서요.



그러게~ 평소 혈압약은 드시고 계셨지만 건강은 자신 있어 하셨다는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검진 잘 챙겨드리고 수시로 체크해야겠어.

오전 03:25

오전 03:25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입맛이 통 없다하셔서 내일 가 보려고요. 당뇨약도 떨어져 간다고 하시니 병원 들러서 처방받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올게요.



역시 우리 집 맘머느리가 최고다. 고마워~ 그리고 이따 잠깐 집에 들렀다 갈 거야. 어제 입었던 옷도리에 친구들한테 받아놓은 부주 봉투 있으니가 챙겨놔 줘.

오전 03:25

오전 03:25

알았어요. 운전조심하고 이따 봐요.



응~ 들어가면서 과일 사가지고 갈게. 우리 아들이 딸기 먹고 싶다고 아까 문자했거든~

오전 03:25

오전 03:25

그래요? 아까 나한테 뭐먹고 싶냐고 해서 딸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한테 문자를 했나보네요. 아들 덕분에 맛있는 딸기 먹게 되었네~

전송

옷도리는 ‘윗도리’라고 써야 맞습니다.

‘윗도리’는 ‘허리의 윗부분’ 또는 ‘위에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윗도리만 내놓고 물속에서 철벽거린다. / 윗도리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은 손수건.

부주는 ‘부조’라고 써야 맞습니다.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예》 결혼식에 못 가 부조를 대신 내달라고 했다. / 조문객은 복적거렸으나 보릿고개라 부조는 보잘 것 없었다.

김은미 명예기자 _ iam34@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브라보안산에 게재된 내용 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는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031-481-204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낡은 세월호 현수막을 삶으로 복원시키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송지은 대표를 만나다

우연히 송지은 작가를 만나게 된 날,
 낡은 세월호 현수막으로 예술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많이 끄덕였다.
 송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낡고 찢어진
 세월호 현수막에 익숙해졌듯이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새삼 무섭기도 했다.
 작년에 ‘반갑다! 현수!’를 기획해 파손된 현수막을
 ‘세상에서 유일한 현수막’으로 재탄생시킨 송지은 작가를 만나,
 세월호 이야기를 예술가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을 들었다.



세월호 현수막으로 예술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작년에 초지역에서 사무실까지 많이 걸어 다녔는데, 가로수에 걸린 파손되고 색이 바랜 세월호 현수막에 눈이 많이 갔어요. 때론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일상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닮아있을 때가 많잖아요. 세월호 현수막이 찢겨져있고 색이 바래 있다는 건 우리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삶에서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작가로서 고민한 건 ‘익숙해져서 터부시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삶으로 복원시킬까’라는 문제였고, 그런 관점에서 현수막 자체에 주목했죠.

작업은 주로 어떻게 이뤄졌나?

저와 함께 작업했던 작가들은 6명이었는데, 작가들마다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일단 저는 목요일마다 분향소 공방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들 뜨개질 행위자체를 제 식으로 해석해서, 많이 파손돼 귀퉁이가 없어졌거나 날개가 찢어진 현수막을

뜨개질로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반 토막 난 현수막을 중간부터 노란색으로 뜨개질을 하거나, 찢어진 부분을 뜨개질로 만든 꽃이나 나비로 연결했어요. 구수현 작가는 색이 바랜 현수막 위에 조각 낸 천들을 이어 붙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주요 단어들만 남기는 작업을 했고, 신은경 작가는 사주 풀이로 염색을 해서 오행의 의미를 나눠주는 작업을, 김태균 작가는 학교 교실에 있던 칠판이나 풍경의 이미지를 가져와 작업했죠.

세월호 이야기를 예술 작업으로 풀어내며 느꼈던 점?

작년에 분향소 공방에서 작업할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 어머니는 수세미를 뜨고 있고, 다른 어머니는 양말목을 뜨고, 저는 현수막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결과나 목적은 다르지만 각자의 뜨개질을 한다는 게 좋았어요. 뜨개질 하는 어떤 행위 속에서 마주치는 묘한 접점들이 있잖아요. 낡을 헤아리는 건 그 사람에게도 치유가 되지만 나 자신

에게도 치유가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멀어진 걸 당기는 것 같아요. 사실 세월호는 유가족이나 안산시민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내재돼 있을 거예요. 그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주변하고 차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게 무의식 안에 가라앉아 있어 우리 스스로 그걸 모를 뿐이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재돼 있는 기억이죠. 먼 얘기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애긴 거예요. 우린 모두 다 기억하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을 뿐, 그걸 다 본거예요. 낡은 세월호 현수막은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 모습의 흔적이고 증거물인거죠.

제가 현수막 작업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건 예술가들의 역할이에요. ‘잊어버렸잖아, 이젠 안 보잖아, 이렇게 대하잖아.’ 뭘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 길에서 마주보고,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쯤 물어보는 거죠. 

글·사진 송보림 명예기자 _ treehelper@naver.com

부모와 소통
 자녀와 소통
 교사와 소통

상록구 용신어린이집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 신뢰 구축



어린 자녀를 품에서 떼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보내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아이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원장의 교육철학과 가치관, 교사들이 자신의 아이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지, 실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되는지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궁금한 게 많다.

상록구 각골로에 위치한 용신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열린 어린이집 정책 추진 일환으로 공모한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소통 프로그램 공모’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을 가정에 제시한 ‘용신통통통’ 프로그램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용신통통통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보육과정에서 진행되는 놀이 활동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매주 발행되는 보육계획안에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다. 주말을 이용해 부모가 자녀와 놀이로써 소통하고 활동결과를 어린이집 카페에 올림으로써 교사와도 소통이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이명순 원장(59세)은“지금의 부모들은 아이와 TV를 시청하거나 놀이시설에 데려가주는 것 외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방법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 방법도 알려드리고 부모님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며 부모들의 호응이 뜨거워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가

지 있었다고 했다. “물감가지고 아이와 놀아주세요. 신문지 찢어서 문채가지고 아이와 눈싸움을 해주세요. 재활용품 이용해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보세요.”계절과 주제에 맞게 매주 혹은 격주로 미션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부모와 놀이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부모들은 또 놀이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공간에서 교사와 공유했고 그러면서 부모, 자녀, 교사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여갔다.

이명순 원장을 도와 이곳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길러낸 남궁선희 원감(47세)은 아이들 자체가 사랑스럽고 예쁘다. 어떤 아이는 목소리가 커서 예쁘고, 또 어떤 아이는 목소리가 작아서 예쁘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아주고 아이가 원하는 게 뭘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아이들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

☎ 문의 : 용신어린이집(031-416-6242)
 글·사진 백미란 명예기자 _ whity0218@naver.com

3월 취학어린이 예방접종 마쳤나요?

자신과 친구들 건강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



만 6~7세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단체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영유아기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취학어린이들은 단체생활에 앞서 빠뜨린 예방접종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4종의 접종 내용이 모두 확인되면 별도로 확인서를 학교에 낼 필요는 없다. 보호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있는지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4종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무료로 12종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다. 다음은 대상 백신이다.

BCG(폐내염),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MMR(홍역 / 볼거리 / 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 /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일본뇌염 생백신

☎ 문의 : 상록보건소(031-481-5971), 단원보건소(031-481-3515)
백미란 명예기자_ whity0218@naver.com



안산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안산시는 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희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2016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근로기간은 2016. 5. 2~8. 22(4개월)이며,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안산 시민으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실업급여 수급자, 직전단계 중도포기자(당초 미참여자 포함)등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본인 및 세대원 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자 발표는 4월 26일 개별 통보하고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게시할 예정이다.

☎ 문의 : 일자리정책과(031-481-3279)



2016 재활용 나눔 장터 개장!

안산시는 재활용 활성화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2016 재활용 나눔 장터’를 오는 3월 26일(토) 오전 10시 ‘고잔동 광덕로 안산문화광장’에서개장한다.

재활용 나눔장터는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가지고 나와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행사로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하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금년 나눔 장터는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전용구역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한다. 또한, **폐휴대폰, 폐건전지, 종이팩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리폼제품 또는 화장지 등을 교환**해 준다.

☎ 문의 : 청소행정과(031-481-3536)



꿈꾸기에 빛나는 청춘,

바로 당신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주인공입니다.

안산시는 3월 21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 2016년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경기도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지원을 통해 1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통장으로 자격요건은 2016년 3월 2일 공고일 현재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환산소득)이 중위 소득 80% 이하인 가구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30명(경기도 500명)이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 문의 : 경기복지재단(031-267-9334-5)

봄
꽃으로
오다

대부도 해솔길 1코스에서 만난 봄.
추운 겨울을 참아내고 올라 온 노루귀와, 불변의 약속을 수행하듯 산수유가 꽃망울을 내밀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_ hanmarus@naver.com



Photos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금개
구리
생태
공원

수인선 협계철로변의 금개구리.
아직 겨울잠이 덜 깬 듯 움직임이 느리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지만 도심 생태공원 안에서 잘 보호되고 있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_ econojin@naver.com



“

고마워요, 안산시 드림스타트

”



“아빠, 다음번에 그런 공부 또 하고싶어요”

며칠 전 안산시 드림스타트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시켜준 적이 있었나 보다. 아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우리 둘째 아이를 거기 보내서 강의를 듣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아이가 내게 불쑥했던 말. 용돈이라는 말만 듣던 아이는 신용, 경제, 빚, 소비생활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서 직접 듣고 배운 게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연신 새로운 무엇을 깨달은 과학자처럼 좋아했다. 아이를 보면서 안산시 드림스타트가 해준 교육이 무척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지만 특별한 설명이나 ‘규모의 경제’에 대한 가르침 없이 일상적으로 주는 부모들이 적잖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던가. 우리가 큰 아이 키울 때 ‘사고’가 한번 일어났다.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때 갑자기 부쩍 게임기와 장난감을 잔뜩 사들었다. 주는 용돈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연일 방으로 차곡차곡 쌓여 가길래 아내를 시켜서 좀 알아보라 했더니 이놈이 제 엄마한테 하는 말, “그거 외상으로 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녀석이 외상을 썼다고? 어른으로 말하면 신용카드를 마구 긁은 셈인데... 더 기막힌 건 “어~영. 1년에 돈 많이 생기는 날 있잖아. 내 생일날하고 어린이날, 설날 때 받는 세뱃돈 다 모으면 그건 값을 수 있어”라며 태연한 아이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아이는 빚은 때 되면 다 값을 수 있다는 아주 안일한

생각에, 그걸 갚지 못 했을 경우 생기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차 싶었다. 그리고 우리 부부도 큰 책임을 느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내가 아이 준비물을 일일이 못 챙겨서 가끔씩 문방구에 가서 외상으로 사 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만 거기서 ‘길’을 잘못 든 것이었다. 문구류를 외상으로 사다가 가끔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 가자, 주인아저씨가 집이 어딘 줄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기 때문에 외상을 잘 준 것이다.

신용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사이 돈이 없을 때나 급할 때는 외상을 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인식이 아이에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때 생각을 하면 이번에 아이들에게 안산 드림스타트에서 해준 경제와 신용교육은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아주 유익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경제규모를 잘못 관리해 파산하거나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용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준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경제관념을 키워준 드림스타트 교육에 다시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오 선 진(상록구 본오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우리집 수질검사! 지금 신청하세요~

-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
『수돗물 수질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 ▶ 우리집의 수돗물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나요?
- ▶ 우리 안산에서 공급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막대한 불안전 및 노후배관 등으로 불안하십니까?
- ▶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를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 안산시에서는 수돗물 방문수질검사 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수돗물 적합스티커를 부착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6. 3. ~ 12.

○ 신청방법 : 전화(☎ 481-3825) 또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수질관리 >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 방문일시 : 매주 수요일
※ 신청일자 상관없이 당일날짜 신청가능

○ 검사항목 (1차 부적합시 2차 검사 진행)
- 1차(5개) : 수소이온농도(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
- 2차(7개)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일보니아생질소, 아연, 망간, 염소이온

○ 검사방법
- 1차 수질검사 후 적합 수도꼭지에 수돗물 적합 스티커 부착
- 1차 수질검사 시 부적합 수도꼭지에 대해 2차 수질검사 실시

지원처 : 상하수도사업소, 접수처 : ☎031-481-3825

문의: 교통정책과(☎ 031-481-2495)

향긋한 봄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취나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